

# 민주 당대표 선거 대혼전...3후보 호남 표심 공략 주력

### 광주·전남 시작 합동연설회 호남조직 모으기 행보 본격화 정치인 동원 줄세우기 우려 최고위원 선거 경쟁도 뜨거워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혼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우원식·송영길·홍영표(이하 기호순) 의원의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당 대표 선거는 각 후보들이 오랫동안 안 당 안팎에서 지지세를 다져 박빙의 승부가 예측되고 있다. 특히 당권 주자와 대권 주자들 간 친분권에 따른 지지세력의 이동도 감지되고, 최고위원 선거도 겹치면서 결과를 예측하기 더욱 힘들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4·7 재보선 참패로 쇠신의 시련대가 될 것이라 예상됐던 민주당 전당대회가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일부 지역에서는 정치인을 동원하는 '줄세우기' 우려도 커지고 있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본격적인 표심 잡기 대결에 들어갔다. 당권 주자들은 지난 2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제주 첫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22일 대전·경주에 이어 부산·대구(24일), 춘천·서울(26일)에서 차례로 합동연설회를 한다.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5월 2일 열린다.

차기 대표는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총지휘하는 권한이 있기에 당의 관심이 온통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역 정가도 당 대표 인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후보별 지지세력으로 결집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남의 선택이 중요한 방향타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당권 주자들은 호남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지지세를 넓히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당내 소그룹인 민평련을 중심으로 세력을 넓히고 있으며, 1981년 5·18민주화운동 관련 집회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인연 등을 앞세워 호남 표심을 두드리고 있다. 고흥 출신인 송 의원은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한 인연 등을 앞세워 세력을 결집하고 있으며,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또 홍영표 의원은 노동계 설득에 적극 나서는 등 '광주형일자리' 태동과 정착에 기여한 광주와의 인연을 내세우며 표발을 다지고 있다.

이번 당 대표 선거는 '호남의 선택' 못지 않게 전국대의원 확보도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만 6000여명(2021년 8월 전당대회 기준)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전국 대의원의 선택이 전체 판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광주·전남 조직을 모으기 위한 당권 주자들의 행보도 본격화 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당대회 투표에서 45%가 배정된 전국대의원 1명이 80여만명으로 파악되는 권리당원(45% 배정) 40~50명과 맞먹는 영향력이 있는데다 전국대의원은 조직적인 투표를 하는 성향이 강해 누가 전국대의원을 많이 확보하느냐가 승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병원·황명선·김용민·전혜숙·서삼석·백혜련·김영배 후보가 맞붙은 최고위원 선거도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발언하는 윤호중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5·2 전당대회가 일반 국민의 시선을 끌지 못하고 '집안 잔치'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재보선 참패와 맞물려 30% 초반대에 갇

힌 당 지지율이 5·2 전대를 지렛대 삼아 다소나마 반등하지 않겠느냐는 눈높이에는 못미친다는 것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민주, 러시아 백신 도입론 고개

### 이재명·송영길 "최악 대비"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가 쟁점화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러시아 스푸트니크V 백신 도입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른바 '플랜B' 차원에서 대비하자는 것이다.

당권주자인 송영길 후보는 2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화이자, 모더나 등 기존 계약 이외에도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백신 도입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플랜B' 추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통령의 백신 외교와 집단면역을 지원하고 플랜B 추진도 확실히 돕겠다"며 "백신 확보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가 살아나면 그것이 곧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푸트니크V 백신은 지난해 8월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승인했다. 현재까지 60여개국이 이 백신의 사용을 승인했지만 효과와 안전성이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개방적 자세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신속하게 자체 검증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스푸트니크V 도입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스푸트니크는 서방과 러시아간의 진영 대결 때문에 금기시 돼 있으나 안정성 검증이 되면 구하기도 쉽고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미국의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도입을 신속하게 하는데 지렛대라도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국내 허가가 안 돼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중앙정부가 객관성을 검증하고 실제 도입 시 반발이나 정치 공세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 경기도가 먼저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황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황령·배임 혐의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출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통과시켰다.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5번째이며,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포함해 21대 국회 들어 두 번째다.

법원은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자금담보 간부인 조카와 공모해,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전혀 근거가 없는 검찰의 일방적 견해"라며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들도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에 몸담았던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책임 논란이 거세지자 탈당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의원 체포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밝기로 결론 냈다.

국회의원 역시 의원총회를 통해 자유 표결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결과적으로 가결 요건을 훌쩍 넘는 206명이 체포안에 찬성함으로써 여야 모두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면할 수 있게 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여의도 브리핑

## 김원이,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국회의원은 21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 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의 경우 청년 위촉의 최소 비율을 10분의 1로 정



하고 있어,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청년 위원을 10분의 3 이상 위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서삼석 "코로나 이후 국민 일상 되돌리는게 개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21일 "코로나 19이후의 국민 일상을 되돌리는 것이 최우선 개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국민의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 19로 인한 보건의료 개혁 ▲비대면 시대 확대된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개혁 ▲LH 농지투기로 축적된 농지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농지개혁 등을 꼽았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소멸위기지역지원특별법 제정안' 인수(人畵) 전염병 상시통합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방역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자신의 제1, 2호 법안으로 각각 대표발의했다.

인구소멸위기지역법안은 지방의 보건의료여건 개



선을 위해 시·도별로 1개 이상의 지역거점 의과대학과 부속 종합병원 설치 등 국가의무로 규정했다. 정부조직법안은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의 방역 부서 통합을 골자로 한다. 서 의원은 "가칭 방역부와 지역거점병원 신설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열악한 보건 의료 문제를 해소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방역 1등 국가로 거듭날 것이다"며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로 국민안전권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과 합당 당원 의견 들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1일 오후 광주 서구 데일리컨벤션에서 합당에 대한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당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오피스텔 신축 부지

**월세660만원 고정 수입**

- ▶ 대인동 롯데백화점 근처
- ▶ 대지 156평, 일반상업지역
- ▶ 지하1층 지상9층, 47㎡, 64호실
- ▶ 임대/분양 100% 최고 장소
- ▶ PF 28억 가능, 허가 득
- ▶ 매매 - 협의

**중개환영. 010-3605-5000**

###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2차)

당사 주식회사 제이제이인터내셔널은 2021년 4월 1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현재 청산인은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인 바, 당 회사의 채권이 있으신 분은 이 공고 게재일 다음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제출이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2일  
주식회사 제이제이인터내셔널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239-31(옥동)  
청산인 이경관

### 분실공고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845-10 송정역 한국아일랜드 터시티 512호  
계약자: 고광선  
위와 같이 분실공고함.  
2020년 4월 22일

### 산행안내

4월25일(일)  
▲광주서산악회 4월25일(일) 남원 지리산 배래봉, 철쭉꽃 산행, 염주체육관 07:00, 동아병원 07:05, 롯데백화점 07:10, 광주역 07:15, 문예후문 07:25, 비엔주차장 07:30  
\* 다음카페 광주ki산악회 ☎ 010 7794 6920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인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전남 목포시 달동 산225-15
2. 분묘가수: 3기
3. 개장사유: 사유재산권반환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의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세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5. 인고대상: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1140-39 목포수모란류
6. 인고기간: 인고 후 5년
7. 공고기간: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8. 신고처: 전남 목포시 쇠원동 군화오일 103동 1302호 주어진 010-2260-1799
9. 신고방법: 신고인(고)자는 사면에 필요하지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명서류(가족, 제적증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10. 기타사항: 개장 공고 후 사멸이 확인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후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결정합니다.

2021년 4월 22일  
공고인: 주어진

##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 광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 연남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 69년을 밝히는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 지역안내 •

<p><b>북 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광 266-1920</li> <li>• 북광주 525-3761</li> <li>• 양 산 571-7658</li> <li>• 용 봉 433-1503</li> </ul> <p><b>동 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 광 673-6836</li> <li>• 동 부 225-6001</li> <li>• 충 장 222-8171</li> </ul> <p><b>남 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 부 673-6836</li> <li>• 북 신 673-6836</li> <li>• 진 월 671-7276</li> </ul> <p><b>서 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 천 382-5788</li> <li>• 서광주 369-1625</li> <li>• 치 평 376-6511</li> <li>• 화 정 369-1625</li> </ul> <p><b>광산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 남 952-1687</li> <li>• 침 단 973-2900</li> <li>• 광 산 944-0444</li> </ul>	<p>• 문 흥 266-196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 안 222-8171</li> <li>• 오 치 266-7601</li> <li>• 우 산 433-1503</li> </ul> <p>• 동 명 222-905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 앙 222-9054</li> </ul> <p>• 백 운 651-183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 하 675-6605</li> </ul> <p>• 상 무 372-235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 천 376-7153</li> <li>• 풍 암 603-0311</li> </ul> <p>• 월 곡 959-19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 남 955-0451</li> </ul>
--	--